

# THEM BEFORE US

# A GLOBAL CHILDREN'S RIGHTS MOVEMENT

Children's Rights Before Adult Desires

현대적 가정의 아이들은 괜찮을까

####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현대적 가정에서...



Them Before Us: Why We Need a Global Children's Rights Movement

케이티 파우스트 & 스테이시 매닝 공저 로버트 조지 추천 / 하선희 옮김

로세를 콜슨

# THEM BEFORE US



Why We Need a Global Children's Rights Movement

#### KATY FAUST & STACY MANNING

Foreword by Robert George Narrated by Katy Faust



#### 최근 우리나라의 동향

국민 절반은 "결혼 안해도 돼"…'비혼 동거 가능' 65%

별거 7개월에도 이혼 판결… 법원 "끝난 관계"

🥑 세종=박희창 기자

뉴시스 시회

책임 따지는 '유책주의' 아닌 現상태 중시하는 '파탄주의' 판결 잇따라

미성년 자녀 있어도 '성별정정 가능'…대법 판례변경 배경은

사유리처럼 '비혼 출산'...인권위 "시험관 지침 개정해야" 입력 2022-11-25 11:33 | 업데이트 2022-11-25 11:3

"그게 다 가능해?"...'전청조'가 지핀 성전환 수술 논란, 진실은

입력: 2022-07-03 1











#### 차례

- ▶ 생물학의 중요성
- ▶ 성별의 중요성
- ▶ 결혼의 중요성
- ▶ ThemBeforeUs의 실천 방법
- ▶ 인간이란 무엇인가
- ▶ 몸의 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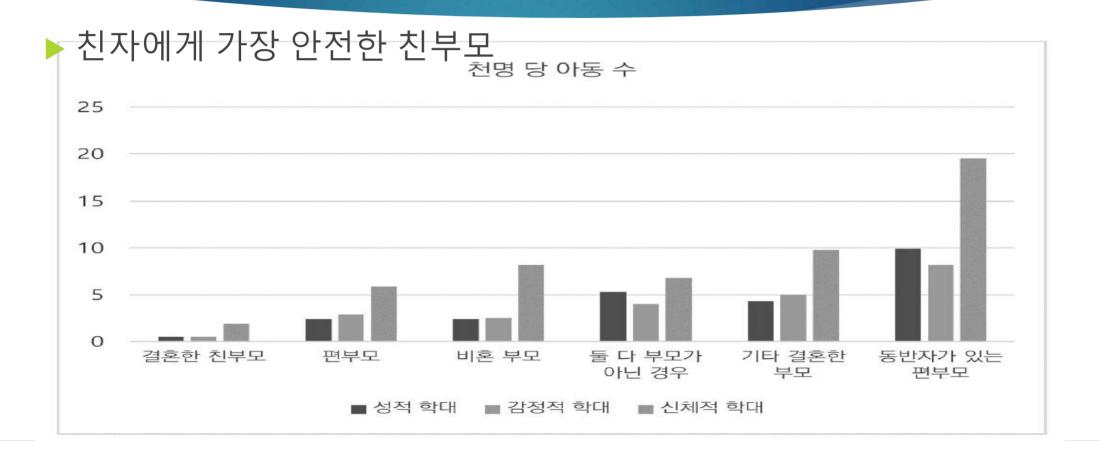
- ▶ 한 아이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생식세포의 융합으로 생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인간
- ▶ 이 아이를 만든 한 남성과 여성(양친 부모)이 이 아이가 세상을 잘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두 사람
- ▶ 양친 부모의 부재는 이 아이의 신체, 정신, 정서적 고통 야기



- ▶ 친부모의 부재가 아동의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 사망, 관계 단절, 이혼, 수감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동의 말단소립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염색체를 보호)의 길이가 더 짧음
    - 남아가 여아 대비 40% 더 큰 영향을 받으며 다섯 살 이전에 아버지를 여읜 소년 집단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짐
  - ▶ 여아의 경우 조기 사춘기(평균 1년 조기 월경)
    - 조기 월경은 십대 임신 증가 야기(전국 평균 대비 7배)
    - 조숙증은 기분 장애, 약물 남용, 생식기관 암과 유관

▶ 친자에게 더 많이 투자하고 사랑을 쏟는 친부모

	친부모 가정	계부모 가정
건강검진 수검 비율	61%	46%
안전벨트 착용 비율	74%	52%
식료품에 지출되는 비용	계부모 가정 아동 1인 대비 5%↑	친부모 가정 아동 1인 대비 5%↓



- ▶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생물학적 정체성을 제공할 수 있는 양친
  - ▶ 생물학적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의 고통
    - 입양아: 나의 생물학적 뿌리에 대해 사실상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은 청소년기에 심각하게 손상된 정체성의 위기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든 형태의 반사회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궁극적으로는 양부모와 심각하게 역기능적 관계로 나타났다.
    - 기증에 의한 임신으로 태어난 아동: 나는 열심히 생물학적 부계의 가족을 이 년 동안 찾아 헤맸다. 각종 DNA 사이트와 페이스북 그룹들, 다른 온라인 그룹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저 검색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진빠지는 일이었다. 때때로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만 찾았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다. 그러나 그냥 묻어둘 수는 없다. 노력을 해도 매일 거울을 보거나 낯선 사람에게서 익숙한 특징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든다.

- ▶ 기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동의한 비율
  - > 기증자는 나의 정체성의 절반에 해당(64%)
  - > 기증에 의해 태어났다는 사실이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 중요(78%)
  - ▶ 기증자와 성격, 기술, 신체적 닮은 점에 대해 궁금함(81%)
  - > 가족 병력에 대해 완전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을 우려(77%)
  - ▶기증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거나 관심을 가지면 본인을 양육한 부모가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거나 위협을 느낄까봐 우려됨(53%)

매일 나는 나의 생모에 대해 궁금하다. 그녀도 나를 궁금해할까? 내가 닮았을까? 우리는 성격이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들도 비슷할까? 내가 이복형제가 있을까? 나에 대해 아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계실까? 이 정도는 수박 겉핥기도 안 된다. 나는 나의 친엄마를 모르고 그녀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한 고통을 이루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정말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생각을 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3</sup>

나는 아빠가 없다. 또한 아빠에 따라 가는 정체성에 대한 감정도 없다. 나의 뿌리의 절반, 나의 아버지, 나의 가족의 병력조차 알지 못한다…그래서 의사가 "가족병력이 있나요..?"라고물을 때면 나는 그런 건 모르고, 알 수가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sup>10</sup>

당신의 정체성의 절반이 한 순간에 그렇게 벗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른다… 신원을 알수 없는 너의 아빠가 너를 팔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당신의 자아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란 존재하지 않는다. <sup>14</sup>

- ▶ 양친 부모 양육으로 가정 내 성별 균형이 아동 발달에 주는 효익
  - ▶ 보살펴 주는 엄마 & 도전을 독려하는 아빠
  - ▶ 안전에 주의하는 엄마 & 모험을 중요시하는 아빠
  - ▶ 가정을 나타내는 엄마 & 세상으로 초청하는 아빠

☞ 이렇게 서로 다른 성별의 엄마, 아빠가 모두 있어야 아이가 자신감 있고 감성적이면서 전인격을 갖춘, 자제력 있는 성인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극대화됨

- ▶ 성별 균형이 깨진 동성 부모 가정의 아이들의 증언
  - ▶두 명의 엄마가 키운 테오도어가 아버지 같은 존재를 찾았던 경험
    - 어린 시절부터 나는 친구들의 아빠들, 적어도 친절하고 책임감 있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빠들에게 반했다. 나의 엄마들도 내심 나에게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그것은 현명한 처신이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빠도 그가 내 인생을 충족시키는 본인의 역할을 알아서였는지, 기꺼이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 주셨고 나는 그 일에 대해 평생 감사할 것이다.

- ▶ 성별 균형이 깨진 동성 부모 가정의 아이들의 증언
  - ▶게이 커플의 자녀 사만다 위싱의 이야기
    - 나의 형성기 거의 전체 동안 내 인생에는 여성이 없었다. 학교에서 "공룡 시대"라는 만화 영화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다섯 살 아이의 머리로는 내가 왜 엄마가 없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엄마를 절실하게 원하게 되었다. 나는 상실감을 느꼈다. 나는 그 구멍을 느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구멍을 고모들, 아빠들의 레즈비언 친구들, 선생님들로 메꾸려 애썼다. 1 학년 때 선생님께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지 물어본 일이 생각난다. 내게 조금이라도 사랑과 애정을 보여 주는 어떤 여성에게나 그 질문을 했었다. 그건 본능이었다. 나는 두 동성애자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했다

#### 결혼의 중요성

- ▶ 모든 자녀에게 양친을 보장하는 가장 아동 친화적인 전통 결혼 제도
  - > 결혼의 의미는 그 자녀에게 있어 정의(定義)의 문제
  - ▶ 결혼을 재정의해서 자녀에게서 양친을 배제시키는 것은 불의(不義)
  - ▶ 결혼의 목적은 성인 당사자의 행복 추구가 아님

☞ 아동은 친부모에게 양육될 권리를 갖기 때문

만일 아빠의 성전환을 축하하는 아이들의 진정성에 의심을 가진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부모가 전환 과정을 겪은 많은 아이들이 그경함을 죽음과 같은 유형으로 그렸다. 그들은 아빠가 엄마가 된 것이 아니라 아빠가 전부 사라진 것처럼 느꼈다.

성전환을 겪은 가정을 지원하는 단체인 '가정을 도와주세요(Help 4 Families)'의 설립자이자 책임자인 데니스 시크는 그녀의 아버지가 아홉 살 난 자신을 앉혀 놓고 그녀에게 여성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 날을 기억한다. "내 기억에 나는 '난 이미 엄마가 있어. 난 아빠가 필요해. 난 아빠를 원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sup>36</sup>

조슈아 휴잇의 아버지는 조슈아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족을 떠나서 캐런이 되었다. 서른여섯 살의 조슈아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에 이어 아버지의 전환을 "21년 전 나는 아버지를 잃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그가 죽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느 날 그는 집을 나가서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묘사했다.<sup>37</sup> 조슈아와 캐런은 관계를 유지하긴 했지만부모와 자녀 관계는 아니었다. 캐런과 같이 한 인터뷰에서 조슈아는 그의 인생에서 그가 캐런을 원하지만 다음 내용을 강조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이 분은 내가 자랐을 때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녀가 "나의 남은 생은 여자로 살고 싶다."고말한 바로 그 날 그녀는 거대한 폭탄을 터뜨린 거고 그 때의 대학살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계속될 겁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sup>38</sup>

우리 아빠는 스테파니로 개명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파괴했다…내가 느꼈던 감정은 사라졌다. 나에게 있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것을 바꿀 길이 없다. 내가 한 때 알던 사람의 껍데기를 보는 것이었다. 그를 보는 게 힘들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이다. 매번 이런 동일한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그를 같은 방식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었다.<sup>39</sup>

존은 아버지의 남성성이 사라진 것을 애도한다.

나는 현관 앞에서 그가 내 앞으로 쓴 편지를 발견했다. 아빠가 스스로 정말 여성으로 느껴진다는 내용이었다. 호르몬 처방과 수술이 이어졌다. 솔직히 말해서 그 변화는 거북했다. 아빠에 게는 내가 자라면서 사랑했던 거칠고 강한 면이 늘 있었다. 그는 나의 책에서 상남자였고 아버지의 힘 덕분에 나는 안정감과 안전한 감정을 느꼈다. 그 "치료들"은 아빠의 더 남성적인 특징들을 약화시키는 것이어서 아빠는 여성스러운 특징을 새로 가지게 되었다. 가장 힘든 부분은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중후한 멋진 바리톤 음색이 그립다. 이제 그는 더 높은 음색으로 더 여성스럽게 이야기한다. 이 모든 것이 잔인하고 왜곡된 꿈과 같이 너무 억지스럽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그를 보는 것도 모두 고통스럽다…나는 아빠가 돌아왔으면 정말 좋겠다. 그가 어떻게 납치된 듯한 느낌이다. 40

#### 결혼의 중요성

- ▶ 아이들에게 양친 부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인가(전통 결혼) vs 아이들을 성인들의 욕구에 희생시킬 것인가(친부모에 양육될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동성혼,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정의 합법화)
  - ▶ 법이 아이들에게 친부모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당연히 잃어버린 부모를 궁금해하고 그리워할 것
  - ▶국가가 인정한 가정의 정의와 아이의 친부모에 대한 자연적인 갈망, 아동의 천부적 권리와 상충할 때 아이들은,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부모님에 대한 자신들의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갈망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됨

#### 결혼의 중요성

- ▶ 이혼, 정자 기증과 같은 제3자 보조 생식 기술은 성인이 의도적으로 자녀가 친부나 친모와 가지는 관계를 부인하는 것
  - ▶ 아동은 성인이 원하는 생활 방식에 맞도록 오려 붙이는 물건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
  - ▶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아이를 위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힘든 일을 해야 하며, 어른들이 그 힘든 일을 하지 않을 때 아이들이 희생됨

## 결혼의 중요성(이혼 가정 자녀의 증언)

일곱 살 난 레이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 이 문제의 정곡을 찌른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너무나 괴롭다…나는 부모님 둘 다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빠 집에 있을 때에는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 집에 있을 때에는 아빠가 보고 싶다. 매일 밤 나는 누군가를 그리워한다."<sup>42</sup>

#### 별장이 아니라면 두 집은 한 집보다 좋지 않다.

"우리 같은 아이들은 한 주는 어머니와 지내다 다음 주는 아버지 와 지내는 일이 너무 힘들다. 그것은 마치 평생 시소 위에서 사는 것 같다."<sup>35</sup>

-피체스 겔도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두 세계를 왔다 갔다 옮겨다니면서 모든 물품들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챙기느라 매일 짐을 싸면서 받은 스트레스이다.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두고올 지, 세면도구와 찾아와야 할 물품들을 고생고생하면서 매번 계획했던 게 기억 난다. 제출 기한 훨씬 전에 컴퓨터가 있는 집에서 숙제를 준비 했던 날에는, 숙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추후에 바뀌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내게는 나중에 숙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도통 없었기 때문이다. 내 물건들을 깜빡해서 엄마나 아빠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늘 불안하고 긴장했다. 초등학교 일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줄곧 학교 가방 말고 커다란 더플백을 하나 더 가지고 다녔다. 생필품을 가득 담은 지퍼가 고장난 파란 폴리 에스터 가방을 하루 걸러, 격주 주말마다, 이 기지에서 저 기지 로 질질 끌고 다니는 어린 셰르파가 바로 나였다. 나는 친구들 과 달랐고 문자 그대로 짐보따리가 그 사실을 증명했다. 41

#### 결혼의 중요성

- ▶ 동거 가정 자녀들이 겪는 불이익
  - > 가정 내 아이와 혈연 관계가 없는 성인(예: 엄마의 남자친구)은 아동방임과 학대의 위험↑
    - 유치원생이 계부나 엄마의 남자 친구에게 살해될 가능성은 120배↑
  - > 생물학적 부모라도 비혼 상태의 부모와 사는 아동
    - 부모의 결별 가능성 3배↑
    - 신체, 성적, 정서적 학대 가능성 4배↑
    - 가난하게 살 가능성 4배↑
    - 약물 사용, 우울증, 학교 중퇴 가능성 ↑

#### 결혼의 중요성

- ▶ 결혼의 의미 변화가 촉발한 쓰나미
  - ▶ 파탄주의 이혼법 도입(1969) → 미 대법원 동성혼 인정(2015) → 친부모가 아닌 부모가 되고자 의도하는 성인을 부모로 인정하는 양육법 도입 → 결혼존중법(판례로 인정된 동성혼의 성문화) 도입(2023)
  - ► 동성혼 합법화에 따라 생식세포 기중/대리모 자녀 출산 수요↑ → 자녀의 생물학적 부모를 자녀의 인생에서 배제시키는 보조생식기술에 드는 비용을 의료보험 급여 항목 지정 요구↑

#### ThemBeforeUs의 실천 방법

- ▶ 다양한(현대적) 가정 ≠ 다문화 가족
- ► 성인들의 욕구를 우선시할 때 피해자가 되는 아이들의 권리를 우선시/어른들이힘든일을하는것
- 공공정책에 관한 한, 아이들의 권리를 위한 주장의 근거로 공통 권위인 자연법을 사용
- ▶ 성인을 희생자로 그려내는 인간적인 이야기에는 130여 아이들의 실제 피해자가 되어 살아온 인간적인 이야기로 호소
- ▶ 일반인들이 전문가가 되어, 성인들의 어려움에 사랑으로 공감하는 동시에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달

- ▶ 핵심 전제
  - ▶ 사회는 지배계급(억압하는 계층) 대 피지배계급(억압받는 계층)으로 양분됨
  - ▶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대중에 강요함으로써 지배계층의 헤게모니적 권력이 유지됨
  - ▶ 피지배계층이 실제로 살아온 경험 그 자체가 진실에 더 부합함
  - ▶ 사회정의는 피지배계급의 해방을 요구함



기원: 칼 막스

"Alone among these thinkers [i.e., Horkheimer, Bourdieu, Foucault, etc.], Karl Marx invites consensus as a 'true' critical theorist. Indeed, for many, he alone inaugurates the critical tradition" (Levinson et al, Beyond Critique, p. 25-26)









M계화: 프랑크푸르트 학파
"Critical theory was conceived within
the crucible of Marxism" "The
Frankfurt School not only contested
establishmentarianism view of history,
but projected a radical alternative.
European radicals applied its ideas to
reconfiguring the family, sexuality, and
education." — Bronner, Critical Theory:
A Very Short Introduction, p. 2, 7

1850

1900

1950

2000

#### **Cultural Studies**



Bourdieu



Hall





Fanon



Said

Postcolonialism

Black feminism



Freire



Giroux

Critical pedagogy



Postmodernism

Foucault



Derrida

**Feminism** 



de Beauvoir Friedan





hooks



Lourde



Queer theory

Butler



Rich



Bell



Crenshaw

범주	사회적 특권계층	경계 집단	표적 집단	표현방식
인종	백인	혼혈, 흑인, 아시아인 등	아시아인, 흑인, 라틴계, 원주민	인종차별주의
성별	생물학적 남성	성전환자, 간성	생물학적 여성	성차별주의 (이대남/이대녀)
성적지향	이성애자	양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차별주의
계급	부유층, 성위계급	중산층	노동자계급, 빈곤층	계급주의
비장애/장애	비장애인	일시적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차별주의
종교	개신교도	(역사적)로마카톨릭	유대교, 무슬림, 힌두	종교적 억압
나이	성인	청장년	노인, 청소년	연령 차별주의
학교	교사		학생	학생인권조례
가정	부모		자녀	부모의 양육권과 자녀 의 자율권 충돌

질문	기독교	비판이론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피조물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
세상의 무엇이 문제인가?	조	억압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해방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	억압받는 피지배층을 해방시키는 것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해방을 위해 싸우기

- ▶ 창세기의 인간관은 인간의 기원, 정체성, 목적에 관해 현실에 부합하며 인간에게 유익한 설명 제공
  - ▶ 인간의 기원(Where we come from: etiology)
  - ▶ 인간의 정체성(who we are: anthropology)
  - ▶ 인간의 목적(what we are made for: teleology)

- ▶ 현대 사회의 인간관
  - ▶ 생물학적 현실과 별개로, 개인의 감정에 따라 인식하는대로 성별도 정체성도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는 존재
- ▶ 기독교적 인간관
  - ▶ 인간은 육체와 정신의 연합체
- ☞ 스스로를 여성의 몸에 갖힌 남자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지지하는 현대 유행하는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사고하는 정신이 중요하며 육체는 사고하는 바에 따라 성형할 수 있는 물질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 사고는 이원론/영지주의의 부활

▶ 성별의 역설

#### 성별은 사회적 구성물이다

외적 인공적 억압적



#### 성별은 타고난 정체성이다

고유하고 본질적 진정한 것 자유하게 하는 것

☞ 성별은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주장을 개연성 있게 만들기 위해 성별 차이라는 현실을 해체하고 성별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구체화함으로써 오늘의 성별과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됨

- 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mark>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mark>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 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u>아담</u>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u>아담</u>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 20) <u>아담</u>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u>아담</u>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 21) 여호와 하나님이 <u>아담</u>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 22) 여호와 하나님이 <u>아담</u>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mark>여자</mark>를 만드시고 그를 <u>아담</u>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 23) <u>아담</u>이 이르되 <mark>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mark>이라 이것을 <mark>남자</mark>에게서 취하였은즉 <mark>여자</mark>라 부르리라 하니라
-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스스로 창조하는 인간

현실은 인간이 만드는 것

물체인 몸

언어는 현실을 만드는 것

자유는 위반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

현실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

성체인 몸

언어는 현실을 가리키는 것

자유는 자발적 순종

▶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이자 우리 공동의 집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어 핵심이다. 반면 우리의 몸에 대해 우리가 절대적 권력을 향유한다는 생각은 대개 교묘하게 우리가 창조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향유한다는 생각으로 바뀐다. 우리의 몸을 인정하고, 잘 돌보고 그 의미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진정한 인간의 생태학에 있어 필수적 요인이다. 또한 우리의 몸을 여성이나 남성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또다른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특별한 선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작품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는 서로를 더 풍요롭게 한다. 성별 차이를 없애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를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찬미 받으소서* 

- ▶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 ▶ 남성과 여성의 혼인 관계는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mark>새로운 생명</mark>을 낳게 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상징(에베소서 5:31~32)
    - 31. 그러므로 <mark>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mark> <mark>될지니</mark>
    -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크리스토퍼 웨스트, Our Body Tells God's Story

- ▶ 복음이 개인 및 문화 차원에서 결핍될 때 그 부족한 것을 바로 보여 주는 지표는 사람들이 몸을 대하는 태도이다...
- ▶ 인체와 성과의 관계는...복음과 성육신의 관계와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처음부터 복음의 가장 큰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에서 분리하고자 했다...(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요한이서 1:7))...
- ▶ 말씀, 즉 로고스, 의미, 감각, 미, 진리, 선, 운명이 육신이 되셨다는 기독교의 신비의 핵심
- ▶ 몸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의 생명의 바로 그 비밀에 대한 공격이다...

로렌조 알바세테

- ▶ 성혁명의 목적은 성과 출산 사이의 자연적 연계를 끊는 것
- ▶ 후기 성혁명 시대인 현재의 목표는 인간의 생명과 성 자체의 자연적 연계를 끊는 것
- ☞ "해방"과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성의 구분이 사라지는 세상은 생식할 수 없는 사회로 귀결

-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심오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아담이 이브를 처음 발견할 때 느꼈던 하나님이 남녀로 구분하여 만드신 인체의 심오한 아름다움의 재발견
  - 절대 착취당하거나 이용당하고 버려져서는 안 될 사람의 인격의 구현으로 인체를 이해
  - 성을 인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대한 계시로 소중히 여기고 기혼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독신을 택했든 자발적으로 그 삶이 준 신실한 선물을 그 신성한 형상대로 살아내는 것